

특류세평 이대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의 균형 필요성



스마트폰 앱이 증권시세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의 IMEI(스마트폰의 고유번호, 예컨대 ‘86 153603 019600 1’)를 스마트폰 소유자로부터 동의받지 않고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는 위법인가? 법원은 IMEI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IMEI와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결합하여 특정 스마트폰 이용자의 신원을 알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2.23 선고 2010고단5343 판결].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직접,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되는데, 웬만한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하고 개인정보 여부도 매우 불명확한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증권시세를 알려주는 앱을 중단시키고 형사적 제재까지 가해야 할 정도로 IMEI를 개인정보로 취급하고 그 활용을 금지하여야 하는가? 통신사만이 이용자의 신원을 알 수 있고, 통신사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일반 개인이 IMEI로 신원

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신의 스마트폰 IMEI를 알고 있거나 IMEI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IMEI가 외부에 유출되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EI와 같은 개인정보도 활용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산업계의 현실이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활용할 수 있지만, 수많은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은 1960년대 접어들면서 컴퓨터와 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활용되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대량으로 수집되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도 2005년 헌법상의 권리로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였고,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도 매우 향상된 것은 분명하다.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나, 개인정보 규범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자나라 클럽이라는 OECD가 1980년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프라이버시 보호와 동시에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flow)’을 천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1970년대 유럽 국가들이 제정하기 시작한 개인정보 규범이 국가 간 무역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2004)’이나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규범(GDPR, 2018)’ 등이 모두 개인정보 ‘보호’와 동시에 ‘흐름’의 중요성을 천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그 목적으로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하면서도 ‘흐름’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제1조).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 및 민간, 단체 및 개인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적용되고, 대부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형사적인 제재를 가할 정도로 매우 강력하다. 지나치게 강력한 개인정보 규범은 시장참여자들을 위축시키고(chilling effect) 산업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데, 특히 기존의 기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훨씬 더 높은 스타트업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 현재의 법체제로는 AI 모델을 교육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존재하는 ‘공개된 개인정보’조차 활용하기 어렵다. 또한 인류가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운 통찰력(insight)을 얻기 위하여 새로운 ‘석유’에 비유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2020년 소위 ‘데이터 3법’ 개정에 의하여 도입한 ‘가명 정보’에 의하더라도 개인정보를 활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활용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도 IMEI와 같이 그 위험성이 매우 낮은 개인정보조차 활용을 금지할 것인가? 최근에 천명된 세계 3위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도 개인정보의 활용을 확대하는 규범의 개선이 필요하다.

高 FLIX

高FLIX는 고대인이 애정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쇼생크에서 자유를 찾기까지



〈쇼생크 탈출〉
별점: ★★★★★
한 줄 평: 자유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앤디의 이야기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악명 높은 쇼생크 감옥에 수감된다. 하지만 여타 수감자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석방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앤디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결국 감옥 탈출에 성공한다. 앤디가 음악을 방송하는 장면과 레드가 가석방 테스트를 받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영화에서 앤디는 교도소장 사무실의 문을 잡고 오 페라 음악을 교도소 전체에 방송해 감옥 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장면에서 앤디가 모두에게 방송한 이 선율은 단순히 ‘음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도소 외부에서의 유입이라는 의미에서 나아가 영화 내내 자신들을 소외시키는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던 수

감자들에게 선사하는 한 줄기의 희망이었고, 다시 사회 속으로 통합될 수 있는 마음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시도였다. 앤디가 방송한 음악은 교도소 밖의 사회와 교도소를 잠시나마 이어준 연결고리고, 앤디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쇼생크 감옥의 수감자들에게 제시하는 주체다. 비록 교도소에 갇혀 있지만, 본인이 교도소와 그 안의 불합리한 규칙과 관습에 속박된 사람은 아니라고 스스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영화 내에서 앤디의 친구인 레드가 가석방 테스트를 받는 장면은 여러 번 반복된다. 처음 등장하는 가석방 테스트 장면에서 레드는 자신이 사회로 나갈 준비가 되었으며, 자신의 죄를 모두 반성한다는 매우 ‘모범적인’ 수감자의 태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레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은 항상 거부된다. 레드는 돈을 받고 다른 수감자들이 요구하는 물건을 조달해주는 일을 하지만, 사뭇 어른스러운 면이 있으며 앤디에 대한 어렴풋한 동경을 보이기도 한다. 앤디가 탈출에 성공한 이후

가석방 면접에서 레드는 가석방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소위 생각하는 모범적인 모습에서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 오히려 레드의 가석방이 승인된다. 과연 면접관들이 레드에게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모범적인 ‘죄수’의 모습일까 혹은 현실로 돌아갈 준비가 된 ‘인간’의 모습일까. 결국 자신을 꾸며내기 위해 썼던 가면은 오히려 교도소 경찰들이 가면 뒤의 모습을 의심하게끔 하는 장치에 불과했던 것일까? 영화 내내 교도소 관계자들에게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일종의 가면을 썼던 레드는 앤디의 탈출과 함께 비로소 가면을 벗어 던지고 솔직한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억압해왔던 레드가 자신에게 해방을 선사했을 때, 사회도 그에게 해방을 선사했다. 영화는 해변에서 만난 두 사람이 포옹하며 마무리된다. 영화 내내 갈망하던 자유를 찾은 두 사람의 모습과 함께 넓은 바다를 보여주며 그들이 이제 누릴 수 있게 된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를 보여주는 듯했다.

김정담(문과대 서문21)

‘냉전’(冷箭)은 숨어서 쏘는 화살이란 뜻으로
고대신문 동인이 씁니다.



최근 예능프로그램에서는 부부관계 또는 육아와 관련한 관찰 예능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자극적인 소재와 내용으로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도 한다. 보통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부부들의 갈등은 서로의 탓과 실수로 발생한다. 사소한 말다툼에서 과거의 치부까지 드러내 다투는 모습을 보면, 저출산 국가 1위라는 오명을 꽤 이해할 수 있다. 나도 그 당사자로서, 공감되는 내용이 적지 않게 있다. 아들이 태어난 건 작년 7월.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창 재유행할 시기에 태어났다. 태어난 아기를 하루에 15분

돕는다고 표현했다. 능동적으로 하고 싶었지만 잘 몰랐다. 아들이 몇 시에 무엇을 먹는지부터 육아에 관련된 것은 모두 아내의 몫이었다. 그때마다 난 좋은 남편이자 아빠인가 되돌아보게 되었다. 육아는 분명 힘들고 어려운 과제다. 두 사람 모두 해보지 않았던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그 어떠한 일보다 책임 의식이 강하다. 양육하는 방식에서 강하게 충돌할 수 있으며, 부모님들과의 의견 차이도 생길 수 있다. 아내와의 대화에서 갈등으로 이어지는 이유도 서로의 탓 또는 꾸지람이었다. 한 번은 아들

엄마·아빠가 된다는 건

만 유리창 너머로 볼 수 있었다. 직접 만질 수도, 아내가 수유할 수도 없었다. 아내와 난 혼란스러웠고 불안했다. 특히 아내는 아들을 볼 수 없다는 마음에 매일 울었다. 이렇게 아내의 힘들음 깨닫기까지 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아내는 집 밖에서 나갈 수 없었다. 집에서만 육아했으며, 흔한 병원 감진도 나와 동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인가 아내는 늘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였다. 갓난이 아들을 바라보는 기쁨의 얼굴 뒤에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가득 찬 그늘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퇴근 후 최대한 아내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 돕는다는 표현이 다소 어색하지만, 실제로는 주 양육자인 아내의 조언과 지시사항으로 가사를 할 수밖에 없어

이 겠다가 넘어졌는데, 아내에게 “왜 당신이 옆에서 있는데 아기가 넘어져?”라고 탓하며 이야기했다. 지나고 생각해보니 아기는 넘어질 수도 있다. 걸음마 연습을 하다 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난 서로의 장점은 보지 못하고 실수와 단점만을 찾으려 했다. 행복한 육아의 핵심은 건강한 대화다. 업무·육아 스트레스로 지친 하루이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로 당신의 배우자를 아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퇴근 후 돌아온 집에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고, 집 정리가 안 돼 있어도 이렇게 말해 보는 건 어떨까. “오늘 우리 아가가 정말 신나게 놀았구나, 엄마·아빠랑 같이 정리해볼까?”

〈strong〉

카메라사계



맑은 하늘 아래 밝은 웃음

서울시청 앞 광장을 푸른 잔디가 수놓았다. 부모님, 친구들과 함께, 아이들이 뛰놀고 있다.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은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까지 기분 좋게 한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는 맑은 하늘 아래 멀리 퍼져나간다.
김태윤 기자 orgnm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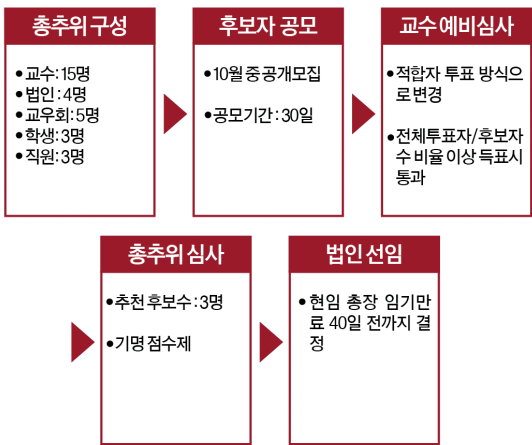
LATTE고신

Latte 고신은 과거 요맘때, 고대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1947년 11월 3일 2010년 10월 4일 (1652호) 2022년 10월 4일

총장선임 방식 바뀌었다

〈개정된 총장선임과정〉



장용민 기자 what@kukey.com

#18대_총장선거 #총장초빙위원회는_언제쯤 #21대_총장선거_제도는

조형준 기자 jun@

유튜브에서 ‘고대신문’을 검색해주세요 |

검색